

정부 및 공공기관 3곳 중 한 곳은 아직도 스팸메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시징 전문기업인 쓰리알소프트(대표 유병선)는 지난달 27일 중앙 정부를 비롯한 전국 군 단위 이상 150개 기관의 전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6%가 ‘차단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 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거나(8%) 스팸차단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유닉스 서버 상의 단순기능에 의존하는 경우(27%) 등 스팸차단노력이 미흡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

한편 스팸차단솔루션을 설치한 경우(28%)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 제주(94%), 서울(89%)은 대부분이 설치한 반면 인천·경기도(30%), 부산·경상남도(28%), 대전·충청남북도(22%), 대구·경상북도(22%), 광주·전라남북도(19%), 강원도(12%) 등은 일부만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쓰리알소프트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팸메일은 정보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일으킬 뿐 아니라 바이러스 침투나 해킹의 도구까지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스팸차단 노력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국가지식포털 대대적인 개편

정통부, 1800억 투입 1억9500만건 자료 열람

국가문화유산 및 지식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국가지식포털’(http://www.knowledge.go.kr)’ 서비스가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재탄생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은 지난 2001년 11월 구축된 국가지식포털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정보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지식포털은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1800여억원이 투입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사편찬위원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정보DB를 인터넷에서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통합검색시스템.

이번 개편을 통해 정보제공 기관수는 331개에서 545개로, 제공정보는 5개 분야(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유산, 예술·역사, 정보통신)에서 8개 분야(건설기술, 산업, 해양수산 추가)로, 자료 수가 9000만건에서 1억9500만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검색방식을 플렉스 텍스트 방식만

제공하던 데서 필드 검색, 상세 검색 등을 추가해 정확하고 상세한 검색이 가능하게 했고 텍스트 자료 외에 음성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도 대폭 추가했으며 문화유산의 경우 사이버박물관을 통해 온라인 관람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공방식이 대폭 다양화됐다.

한편 정보통신부 공공정보화팀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신용평가 솔루션 ‘핑에이스’ 출시

더존디지털웨어

더존디지털웨어(대표 김재민 http://www.thezone4u.net)는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자를 위한 신용평가 솔루션 ‘핑에이스’를 바넷정보기술과 공동개발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핑에이스는 신용보증기금의 재무자동진단시스템과 기업부실예측시스템 프로젝트에 도입했던 기존 제품을 은행권의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여신 대상 진단 기



상아탑 보안학과 ‘훨훨’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학과와 신설 붐이 일고 있으며 교과내용 역시 업그레이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인력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난 97년 중부대에 컴퓨터안전관리학과가 생긴 데 이어 성균관대, 광운대 등 많은 대학에서 정보보호 관련학과를 개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개의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개설됐다.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지난 98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의 정보보호학과를 시작으로 고려대, 순천향대 등의 대학원이 잇따라 정보보호 과정을 신설했다.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정보보호 관련학과는 이론교육 일반도에서 벗어나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다.

동서대 인터넷공학부는 정보보호 전문 교과목을 개설해 해킹 및 방화에 관한 체계적인 강의와 실습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지원과 서버보안 전문업체인 레드게이트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킹 교육뿐 아니라 대응실습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는 최근 해킹대응 교육장을 만들었다. 정보보호학과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시설은 유닉스, 윈도우, 리눅스 등 다양한 컴퓨터 환경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원대 정보보호학부도 3학년부터 학교 내부에 구축된 정보보호 실습장에서 실무 중심의 암호화 알고리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훈재 동서대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보보호 기술은 다른 IT관련 기술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변한다”며 “이를 제대로 따라가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론뿐 아니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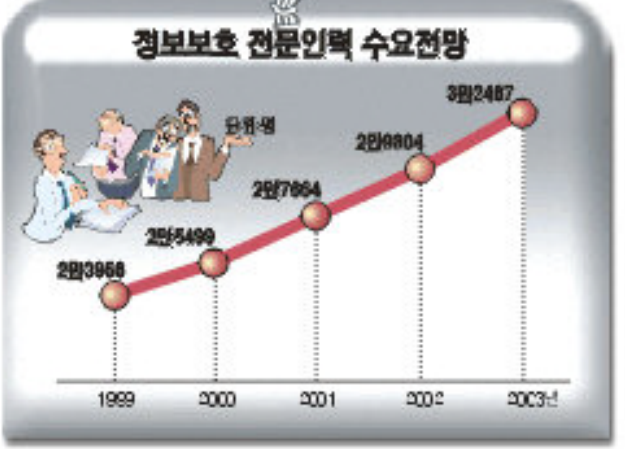
이 교수는 또 “학생들도 교과서가 아닌 실제 해킹방법과 대응능력을 키우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인력난 해소의 견인차=업그레이드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학과는 정보보호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정통부가 발표한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정보보안 인력수요에 대한 인력 공급률은 33.8%에 그칠 전망이다. 정보보호 인력은 100명이 필요한데 정작 40명밖에 없는 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통부는 작년 정보보호 관련 학과 신·증설 지원에 44억원가량을 투자했으며 올



97년 이후 전국 20곳 대학서 개설

이론서 실무로 교과 내용도 개편

해킹대응 교육·연구실습 등 병행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소 견인차

해도 정보보호 인력을 포함한 교과목 개편·신설에 30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학과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올해 정보보호 관련학과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

과가 1학기 수시모집 7명 모집에 45명이 지원, 6.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건양대학교 정보보호학과도 1학기 수시모집 5명 모집에 13명이 몰렸다. 대학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의 평균 경쟁률은 약 5대 1을 기록했다.

김기현 레드게이트 사장은 “작년부터 대학이 정보보호 관련업체와 협력해 체계적인 실습장을 만들고 있는데 해킹교육보다는 대응능력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양질의 정보보호 인력 배출로 이어져 국내 정보보호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영화 속 ‘쥬라기 테마파크’ 한국 온다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35마리 공룡 그대로 재현

영화에나 등장하는 공룡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4개월간 코엑스 특별행사장에서 열리는 ‘쥬라기공원 투어’는 영화 쥬라기공원속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낸 대규모 테마파크. 투어 참가자들은 폐허에서 다시 살아난 인젠 연구소를 방문한다.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실물 크기의 티라노사우루스와 화석을 본 관람객들은 연구소 DNA룸에서 공룡 재생을 위해 호박 원석에 있던 모기의 혈액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격적인 공원 관람이 시작되면 관람객들은 운순한 초식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으며 철장 너머에서는 육식공룡들이 관람객들을 위협한다.



영화 쥬라기공원에 등장하는 각종 공룡들을 현실에서 만나자. 한국 쥬라기공원 투어 사무국은 1일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완공 예정인 행사현장을 공개했다.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의 자회사인 ‘쥬라식파크인스티튜트 투어’는 일본의 ‘메리츠재팬’과 함께 3년간 총 제작비 2500만달러를 투입해 총 8종류 35마리의 공룡을 만들어냈다.

제작비만 150억원이 투입된 이번 한국 투어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100일간 일본 동경의 요요기 경기장에서 열려 총 108만명의 관람객

을 유치한 ‘일본 투어’보다 2배나 큰 4000평 규모로 구성돼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보여줄 전망이다.

한편 한국 쥬라기공원 투어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이달 31일 불우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1만명을 무료로 행사에 초대하기로 했다.

〈정진영기자 jjchung@etnews.co.kr〉